

‘장성 황룡 달맞이 누정이 완성되었다기에’

先人 향기품은 湖南學 신책

名詩 초대석
고봉 기대승 ‘누정시’

호숫가 누정에서 우연히 읊어 제공에게 주다
(湖亭偶吟 贈諸公)

집 이루고 술 익자 손님들 수레 돌려와
堂成酒熟客回車 (당성주숙객회차)
촛불 잡고 잔치 열어 즐거움이 넉넉하다
秉燭開筵樂有餘 (병촉개연악유여)
찬 달은 구름 틈 새어 나와 빛이 일렁이고
寒月漏雲光不定 (한월루운광부정)
저녁안개 물 감싸 색깔이 일제히 없어졌다
暝煙籠水色交虛 (명연롱수색교허)
맑고 깨끗한 옥 술잔이 자주 날아 모이고
涓涓玉斚飛還數 (연연옥박비환삭)
곱디고운 국화꽃은 자연스레 웃는 듯하다
艷艷黃花笑自如 (엄엄황화소자여)
흥을 타 호연히 멀고 가까움이 헛갈리니
乘興浩然迷遠近 (승흥호연미원근)
하늘땅이 여관인가 문득 의심하게 되었다
却疑天地是蓮廬 (각의천지시거려)
기대승(奇大升), ‘고봉집(高峯集)’ 권1

湖亭偶吟 贈諸公
歲酒熟客回車 秉燭開筵樂有餘 寒月漏雲光不定 暝煙籠水色交虛 涓涓玉斚飛還數 艷艷黃花笑自如 乘興浩然迷遠近 却疑天地是蓮廬

‘고봉집’ 권1에 수록된 ‘호숫가 누정에서 우연히 읊어 제공에게 주다’ 시 원문이미지. <한국고전번역원 자료 캡처>

시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기대승의 입장에서 다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요월정이 완성되고, 술이 익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님들이 수레를 몰고 누정에 모였다. 때는 저녁으로 어둑해져 촛불 잡고 잔치를 여니 즐거움이 넉넉하였다. 그때 마침 찬 달은 구름 사이로 새어 나와 그 빛이 일렁인 듯하였고, 저녁안개는 물을 감싸니 물빛이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옥과 같이 맑고 깨끗한 술잔은 자주 나는 듯이 오고 갔으며, 주변에 핀 고운 국화꽃은 마치 자연스럽게 웃는 듯이 보였다. 술에 취해 흥이 일어나니 멀고 가까움이 헛갈려 “하늘과 땅이 여관인가?” 하고 의심하게 되었다.

시의 제1구에서 ‘집’(堂)이라 했으나 제목에서 ‘호숫가 누정’이라 했고, ‘호숫가 누정’은 곧, 요월정을 말하



기대승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월봉서원 건물 전경. 월봉서원 건물은 특히, ‘빙월당’(氷月堂)이란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는데, 이는 정조가 기대승의 고결한 학덕을 ‘빙심설월’(氷心雪月)에 비유한 데에서 유래했다.



요월정 전경과 요월정에 오르는 계단.

는 것이기에 서술문에서 ‘요월정’이라 바로 말했다.

요월정의 ‘요월’은 ‘달맞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당나라 때 시인 이백(李白)이 지은 시 ‘월하독작’(月下獨酌)의 “술잔 들어 밝은 달을 마중하노니, 나와 달과 그림자가 세 사람을 이루었다”(舉杯邀明月 對影成三人)라는 내용에서 차용했다.

그리고 제2구 ‘촛불 잡고’(秉燭)는 중국의 ‘고시19수’ 중 열다섯 번째 작품의 “사는 나이 백 년도 채우지 못하는데, 언제나 천 년의 시를 품고 있도다. 낮은 짧고 밤이 긴 것이 괴로우니, 촛불을 손에 잡고 노닐지 않을쏜가.”(生年不滿百 常懷千歲憂 晝短苦夜長 何不秉燭游)와 이백이 지은 ‘춘야연도리원서’(春夜宴桃李園序) 중 “옛 사람이 촛불을 잡고 밤늦게까지 노닐었던 것도 참으로 그 이유가 있었다”(古人秉燭夜遊 良有以也) 등에 등장한다.

이로써 ‘촛불 잡고’라는 말은 덧없는 인생을 아쉬워하며 밤늦도록 어울려 노는 것을 뜻하게 됐다. 또한 제8구 원문에 나온 ‘거려’(蓮廬)라는 시어는 ‘장자’ ‘천운’(天運) 편 “인의는 선왕의 거려이다”(仁義先王之 廬廬)에서 유래한 말로, 훗날 잠시 머물다 가는 여관을 뜻하게 되었다. 따라서 ‘여관’의 뜻으로 풀이한 것이다.

기대승과 요월정 주인 김경우의 교유

그렇다면 기대승은 어떻게 요월정 시를 짓게 됐을까? 그 속에 기대승과 요월정 주인 김경우(1517~1559)의 우



용소(龍沼)에서 바라다 본 요월정. 이 용소는 이무기가 살다가 용이 돼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이 서려있다.

정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선 두 사람의 이력을 살펴보자.

기대승의 자는 명언(明彦)이요, 호는 고봉(高峯) 또는 존재(存齋)이며, 본관은 행주(幸州)이다. 빗고을 광주 소고룡리(召古龍里) 송현동(松峴洞)에서 태어났으며 기묘명현(己卯名賢)의 한 사람인 기준(奇遵)이 그의 숙부이다. 25세 때 달성시에 응시했으나 윤원형(尹元衡)이 그의 이름을 꺼려 낙제한 바 있었고, 32세 때 문과에 합격해 권지 승문원부정자가 됐다. 이후 병조·이조 좌랑을 거쳐 사헌부 지평·사인 등을 역임했다. 이어 41세(1567, 명종22) 때 원접사 종사관으로 명나라 사신을 영접했고, 전한 벼슬에 올라서는 조광조(趙光祖)·이언적(李彦迪)에 대한 추증을 건의했다. 그리고 46세 때 대사간에 임명됐으나 병으로 사직하고 고향으로 가던 길에 객사했다.

이와 같이 기대승은 32세 이후부터 생을 마감하기 직전까지 여러 관직을 두루 거쳤는데, 그러던 중에 김인후(金麟厚)·이항(李恒) 등과 함께 태극설(太極說)을 논하였고, 정지운(鄭之雲)의 천명도설(天命圖說)을 얻어 보고 이항(李滉)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 이항과 12년 동안 편지를 통해 여러 의견을 나눴는데, 특히 33세 때부터 40세까지 8년 동안 이루어진 사질논변(四七論辨)은 유학사에 큰 영향을 끼친 논쟁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요월정 주인 김경우(金景愚)는 어떤 사람인가? 김경우는 사실 역사적으로 크게 이름을 떨친 인물이 아니다. 따라서 그의 이력을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런데 다행히도 ‘조선환여승람’·‘호남읍지’·‘장성읍지’ 등에 간단하나마 김경우에 대한 이력이 나와 있다.

이들 기록에 따르면, 김경우의 호는 요월정이고,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아버지 이름은 옥곡(玉谷) 김식(金紇)이고, 장성에서 태어났다. 또한 동천(東泉) 김식(金湜)의 문인이고, 김인후·기대승·양응정(梁應鼎) 등과 교유했으며, 좌랑 벼슬을 지냈고, 사복시정으로 증직됐다.

이상과 같이 기대승과 김경우의 이력을 살폈다. 그러고 보면, 김경우가 기대승보다 열 살 더 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김경우가 어느 해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자신의 호를 딴 누정 요월정을 완성했다.

기대승의 시 ‘호숫가 누정에서 우연히 읊어 제공에게 주다’를 통해 보면, 계절은 국화꽃이 핀 가을이었다. 김경우는 요월정을 완성한 뒤 기대승을 비롯해 여러 사람을 초대해 술잔치를 벌였다.

김경우 입장에서 요월정을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었을 텐데, 그 사람들 속에 기대승도 있었다. 김경우는 1559년(명종14)에 세상을 떴고, 이 해에 기대승은 33세였다.

앞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기대승은 그의 나이 32세 때 문과에 합격했다. 이렇듯 여러 정황을 따져보면, 김경우가 요월정을 완성한 시기는 기대승이 아직 관직에 나아가기 이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대승은 고향 광주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김경우는 요월정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기대승을 초대했던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거리가 가깝다 해 김경우가 기대승을 요월정에 초대했을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실 거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과 마음 간의 소통인데, 기대승과 김경우는 모두 사림(士林)으로서 당연히 대화가 잘 통했을 것이다. 그러니 김경우는 요월정을 완성한 뒤 마음이 잘 통하는 기대승이 마침 가까이 살고 있어서 초대해 늦은 밤까지 잔치를 벌였던 것이다.

기대승이 지은 ‘호숫가 누정에서 우연히 읊어 제공에게 주다’ 시만 보더라도 당시 잔치 분위기가 어땠으며, 요월정 주변의 자연 풍광은 어땠는지를 알 수 있다.

특히 제3, 4구에서 요월정 주변의 자연 풍광을 자세히 읊었는데, 구름 낀 하늘에 찬 달이 새어나와 마치 그 달빛이 일렁인 것처럼 보였고, 물을 감싼 저녁안개로 인해 그 물빛이 일제히 사라진 것처럼 보인 것이다.

그리고 제6구에서 “곱디고운 국화꽃은 자연스레 웃는 듯하다”라고 말해 요월정 주변의 자연과 동화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처럼 기대승은 요월정 주변의 풍광과 분위기에 흠뻑 젖어 흥을 타다보니, 땅의 멀고 가까운 것도 헛갈려 하늘땅이 여관인가 의심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김경우의 죽음, 그리고 이은 기대승의 만시

挽金師顏 諱龜 字伯 號 龜 翁 白樓 晴沙 望東 明 臺 君 爲 吾 行 鵲 原 獨 草 情 忍 孤 魚 清 歡 隔 死 生 邀 月 亭 中 幾 醉 醒 人 間 萬 事 付 流 輝 青 山 滿 目 秋 天 字 餘 家 業 崎 孤 光 不 成 幾 回 耽 野 興 眞 復 情 冷 樹 悵 銀 蟾 入 夜 寥 寥 月 中 幾 醉 醒 人 間 萬 事 付 流 輝 青 山 滿 目 秋 天 字 餘 家 業 崎 孤 光 不 成 幾 回 耽 野 興 眞 復 情 暮 笛 迎 飛 鳧 卷 一 高 峯 集 卷 一 五 十 一 卷 一 暮 笛 迎 飛 鳧 卷 一 高 峯 集 卷 一 五 十 一 卷 一

‘고봉속집’ 권1에 수록된 ‘김사안에 대한 만장’ 원문이미지 <한국고전번역원 자료 캡처>

이 중에서 ‘김사안에 대한 만장’ 세 번째

문자는 집안 엄격으로 남았으나
文字餘家業 (문자여가업)
운명 기구해 늙도록 이루지 못했다
崎孤老不成 (기고로불성)
몇 번이나 들뜬 흥취를 즐겼던가
幾回耽野興 (기회탐야흥)
진정 또 벗의 마음 가없게 여긴다
眞復惜朋情 (진부석봉정)
저녁 산봉우리에서 달을 맞이하고
暮崑迎飛鳧 (모수영비토)
봄 시내에서 두형 향초를 켜었지
春溪撥杜蘅 (춘계철두형)
평생에 최고로 서로 어울렸으니
平生最相與 (평생최상여)
오늘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진다
今日淚縱橫 (금일루종형)

(기대승, ‘고봉속집’ 권1)

시 제목 ‘김사안에 대한 만장’의 ‘사안’은 아마도 김경우의 자인 듯하다.

이 만시를 통해 볼 때 기대승이 김경우의 죽음을 얼마나 슬퍼했는지 알 수 있다.

우선 제1, 2구에서 기대승은 김경우가 남긴 문자는 집안의 엄격으로 남았으나 운명이 못했다고 외로워 나이 가 늙을 때까지 큰 뜻을 이루지 못했다.

현재 김경우가 남긴 시와 문장은 없다. 그러나 기대승이 제1구에서 한 말에 따르면, 김경우는 분명히 시와 문장을 많이 지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어 제3, 4구에서 김경우가 들뜬 흥취를 즐겼던 것을 말하는 한편, 그 마음이 가없다 했고, 제5, 6구에서 김경우가 살아생전에 달을 맞이하고, 향초를 켜던 일을 언급했다. 그리고 마지막 제7, 8구에서 기대승은 김경우와 평생에 최고로 어울렸다고 말한 뒤에 슬픔의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진다 했다.

능력은 있으나 그 능력을 펴지 못한 채 평생 동안 자연에 묻혀 살았던 김경우. 기대승은 그의 죽음을 심히 슬퍼했는데, 이 시에 그러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글쓴이 박명희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강의교수)